

데이터로직, 창립 50 주년...'지속가능하고 기술지향적인 미래를 향하여'

자동 데이터 수집과 공장 자동화 바코드 시스템의 글로벌 기술 리더인 데이터로직은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볼로냐의 유니폴 아레나(Unipol Arena)에서 11 월 17 일 50 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속가능하고 기술 지향적인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발표했다.

1972 년에 설립된 데이터로직은 광전 센서회사로 시작하여 바코드 판독기 분야의 설계 및 제조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오늘날 6 억 유로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로직의 성장 비결은 매출액의 10%를 투자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다. "혁신은 우리의 DNA 이기에 항상 가장 발전하는 기술을 주목하고 이를 현실화해 왔다"고 데이터로직의 창립자인 로마노 볼타(Dr. Romano Volta)회장은 언급했다.

현재 데이터로직은 전 세계 29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1 곳의 공장, 8 곳의 R&D 센터, 그리고 3 곳의 데이터로직 랩스(Datalogic Labs)를 통하여 머신 러닝과 인공 지능을 연결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1,20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로마노 볼타 회장과 함께 데이터로직을 이끌고 있는 발렌티나 볼타 그룹 CEO 는 "데이터로직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제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포춘 500 대 기업들을 포함한 전세계 1 만명 이상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며, "끊임없는 헌신과 데이터로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강한 집중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며 지속가능하고 기술을 현실화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로직은 2001 년부터 이탈리아 증권 거래소의 유로넥스트 밀라노에 상장되었으며, 2009 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업으로서 최고 영예인 비지니스 혁신상(Premio Imprese per Innovazione)을 수상했다.

데이터로직에 대하여

데이터로직은 이탈리아 볼로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 데이터 수집과 산업 자동화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이다. 유통, 제조, 자동화, 물류, 운송 및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스캐너, 모바일 컴퓨터, 센서, 머신 비전 및 레이저 마킹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이다.

데이터로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datalogic.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